

시그니처 있는 아침



너는 울었다...
-이반 투르게네프(1818~1883)

너는 울었다, 나의 불행을 보고, 나도 울었다, 나를 슬퍼하는 너의 동정이 가슴에 사무쳐.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불행 때문에 운 것이다. 단지 너는 그것을 내게서 보았을 뿐인 것이다.

타인의 불행 안에서 자신의 불행을 읽고 우는 것을 '자기 설움'에 운다고 한다. 이런 눈물은 궁극적으로 타자가 아닌 자신을 향해 있으므로 구심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원심적이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compassion)'으로 타자를 대하고 그 아픔을 함께할 때 생긴다.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의 말마따나 진정한 윤리는 타자를 위한 스스로의 "무너짐, 그리고 상처받음의 윤리"이다. 이런 사랑은 너무나 커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 목표가 있을 때, 현재는 더디지만 진화·진보를 시작한다. 그리고 진화·진보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선(善)이다.

(오민석·시인·단국대 영문학과 교수)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Global Insights**

현재 세계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 각종 회의와 비관론에 휩싸여 있다. 과연 세계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먼저 최근 세계 경제 회의론의 중심에 있는 중국 경제부터 살펴보자.

상당수의 회의론자들은 이미 중국 경제는 경착륙(성장률 2~3% 수준) 상황에 들어가 있거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 25여 년간 지속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부실 투자와 부실 금융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중국 증시가 요동치고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는 다수의 정통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경착륙 확률을 높게 보지 않는다. 첫째, 중국 정책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오고 있고, 그럼자 금융·서비스 산업 등에는 이미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아직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경제 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

둘째, 14억 중국 경제가 6%대 성장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보다 거의 두 배 내지 1.5배 빠른 것이다. 이를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량 금융 부실과 기업 도산 등에 따른 어려움은 예상되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 현재 세계 경제 회의론의 또 다른 초점이 되고 있는 여타 신흥 경제국, 특히 중국을 제외한 소위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는 어떤가.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는 -4%에 가까운 침체를 겪었고 올해도 거의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호황 시 필요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반면, 국제 저금리 여건 속에서 해외 차입을 지나치게 늘려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어려움이 세계 경제



일러스트=박용석

중국·유럽·브릭스·미국 등 불안과 회의론 퍼지지만 큰 위기 가능성 낮아... 우리가 해야 할 일 차분히 해야

의 체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크고 작은 국지적 금융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세계 제3대 경제대국, 일본은 어떤가. 일본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에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세계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엔화가 불안한 국제 금융 여건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돼 오히려 엔화 가치가 절상됐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이 세계 경제에 대한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양적완화와 함께 금리를 더욱 낮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통화정책 또한 세계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이 분명하며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측면이다.

그동안 그리스 사태 등으로 문제가 돼 온 유로존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가까운 시일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큰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 초에 더 적극적인 양적완화와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미국 경제는 지난해 12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약간이나마 상향 조정할 정도로 호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또다시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어려움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뿐 아니라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마저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저유가는 미국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돼 가까운 시일 내 미국 경제의 경기 후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세계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

던 정책과 경제 현상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회의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비관론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금융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때에 부하노동(附和雷同)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실천해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국제금융의 불안과 높은 변동성 속에서 모든 신흥 경제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30%가 넘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자신 있고 믿음직한 경제정책 리더십을 이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금의 대량 이탈과 증시 폭락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추락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바탕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임을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본사 고문·전 재무부 장관

24일 발매 포브스코리아 3월호 창간 13년 기념 특대호

MARCH · 2016 · 경제리더와 기업 성공스토리

Forbes

Korea

한국 벤처산업 35년 40인의 명암

1981년 한국 1호 벤처, 큐닉스컴퓨터가 설립된 이후 올해로 35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벤처산업을 되돌아보고 시대를 대표하는 벤처기업인 40인의 빛과 그늘을 조명합니다. 벤처산업 도약의 길도 모색해봤습니다.

특별대담
1세대 이민화-3세대 김봉진
'벤처의 미래를 말하다'

자연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젊은 창업자 도시' 판교 스토리

판교 CEO 31명 설문조사
열에 일곱은 "판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될 수 있다"

2016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 40
엑소 1위, 유아인 2위, 헤리 3위
차승원·백종원은 '죽방' 부자 등극

포브스코리아가 지난해 활동한 한국의 셀러브리티를 조사한 결과 한국 최고의 파워 셀러브리티로 엑소가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선정됐습니다. 2위에 유아인, 3위에 헤리가 올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단박에 정상권으로 치고 오른 파워 셀러브리티의 스토리를 만나보시죠.

중편·케이블에서 파워 나왔다 - 파워 셀러브리티 40 리스트 대공개

IT업계의 명사 송길영의 직업철학
MINING MINDS

국내 최고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S.T.듀폰 클래식과 함께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온 다양한 업태의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직업 철학을 들여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주인공은 시리즈를 제안한 송길영 부사장입니다.

김환영의 CEO를 위한 인문학 역사를 만든 '죽은 백인남자들' 세네카

지나 라인하트 한콕 프로스펙팅 회장
위기를 만나면 더욱 강해지는 철(鐵)의 여인

광산 사업가인 아버지는 12살짜리 어린 딸을 중요한 회의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와의 티타임은 물론 싱가포르 총리인 리관유를 만날 때도 동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딸은 빛 더미인 회사를 살려내고 호주 부자순위 2위의 거부가 됐습니다.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
산업디자인계 거장의 새도전

한국인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한 김영세 회장. 30년이 지난 후 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액셀러레이터 랩(DXL-Lab)입니다.

유통이 기업지도를 바꾼다 **1** **쿠팡**

지난해는 쿠팡의 해였습니다. 8배 이상 증가한 매출, 로켓처럼 신속하고 감동적인 배송 서비스, 1조원 투자 유치 등등 쿠팡은 실재없이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쿠팡의 빛과 그늘을 정밀 취재했습니다.

2016 제네바 고급 시계박람회
최신 트렌드

창간 13년 기념 독자를 위한 복인복 증정
'비즈니스 천국'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북

1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발행

1년 정기구독료 170,000원(연당 가격 17,000원) 구독문의 1588-5792